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女給) 고찰

—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

안 미 영*

1. 서론
2. 신형 소비공간 카페와 여급의 출현
3. 카페 여급의 직업적 특수성
4. 육체와 정신이 이분화된 생활인
5. 여성의 직업 필요성과 한계
6. 결론

초록

이 글은 이상(李箱)의 작중에 등장하는 '카페 여급(女給)'이라는 근대적 직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의 여성관을 살펴본 것이다. 당시 카페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카페 여급은 근대문명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이 강한 '직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룬펜 지식인과의 동거를 통해 '육체와 정신이 이분화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폐점이후 호객행위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으로 동거하는 가족, 남자를 부양한다. 비록 이들이 재화 생산의 수단으로 육체는 소모하고 있을지언정, 정신은 이지(理智)를 좇아 룬펜 인텔리와 동거하면서 육체와 정신을 이분화시키는 사고 및 생활을 체현해 낸다. 이러한 여급의 특성은 이상의 작중 여급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적 특징이다. 이상은 여급 및 이에 준하는 여성을 통해 '사회생활 능력'과 '매춘부적 요소'라는 여성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여성의 직업 필요성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적절한 지적이다.

* 경북대 강사

1. 서론

일찍이 1930년대 이상(李箱)은 “一世를 威壓할 만한 「苦言」을 摘摘할 수 있는 그런 智慧의 實力”¹⁾을 드러내기 위한 기술로서 연애를 선택하고, 그 연애의 상대 인물로써 기생 ‘금홍’, 여급 ‘나미꼬’, 여학생 ‘妍’을 작중에 등장시킨 바 있다. 이 중에서 주인공 상대역으로 여급이 등장하는 이상의 작품은 「지주회시」, 「날개」, 「환시기」이다.²⁾ 그 밖에 1930년대에 이르면 다른 작가의 소설에서도 카페 여급이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박태원의 경우 여급이 등장하는 단편은 무려 9편이나 된다.³⁾ 이 밖에 김유정,⁴⁾ 이효석,⁵⁾ 채만식⁶⁾ 등 동시대 작가들의 대다수 작품에서 카페 여급의 출현은 공통적인 사회 현상 혹은 분위기의 반영이라 할 정도로 빈번하다. 그도 그럴 것이 카페 여급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층으로써 우리나라에 카페가 보급된 1930년대를 전후로 카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급의 수요도 늘어났던 것인데, 이러한 여급의 등장은 새로운 생활모습과 풍속의 변화를 몰고 왔으며 나아가 소설의 배경과 소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급이라는 당시의 명칭은 카페 여급이외에 깃다점(다방) 등의

1) 이상, 「중생기」, 『이상문학전집』 2(문학사상사, 1994), p.385.

2) 위 세 작품 중 카페를 배경으로 여급생활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지주회시」와 「환시기」이다. 「날개」는 배천 온천에서 기생이던 금홍(연심)이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와서 여급에 준하는 생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함께 다룬다.

3) 『애욕』(『조선일보』, 1934. 10. 6~23), 「길은 어둡고」(『개벽』 2권 2호, 1935. 3), 「悲流」(『중앙』 1권 2호, 1936. 3), 「보고」, 「천변풍경」(『조광』, 1936. 8), 「성탄제」(『여성』 2권 12호, 1937. 12), 「尹初試의 上京」(『家庭の友』, 1939. 4~5), 「李箱의 悲戀」(『여성』, 1939. 5), 「글목안」(『문장』, 1939. 7).

4) 「따라지」(『조광』, 1937. 2), 「夜櫻」(『조광』, 1936. 7).

5) 「계절」(『중앙』 16호, 1935. 7), 「聖餐」(『여성』 13호, 1937. 4), 「聖畫」(『단편집』, 1939), 「영경귀의 장」(『국민문학』, 1941. 11).

6) 『인형의 집을 나와서』(『조선일보』, 1933. 5. 27~11. 14).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자 급사’라는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효석의 『성찬』(『여성』 13호, 1937. 4)에는 카페 여급인 ‘보배’와 킥다점 여급인 ‘인자’가 서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잡지사에서 일하는 ‘준보’는 아직 남자 경험이 없고 순박한 ‘인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보배’가 시기심에서 ‘인자’ 몰래 준보를 먼저 유혹한다. 이처럼 같은 여급의 명칭을 쓰고 있더라도 카페에서 일하는 여급이 성의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고 그 실현에 있어서도 지발적이며 유희에 익숙한 반면, 킥다점이나 그 밖의 여급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순결을 소중히 간직하는 순수성이 남아 있다. 그 예로 킥다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박태원의 『芳蘭莊 주인』(『시와 소설』 1권 1호, 1936. 3)과 『星君』(『조광』, 1937. 11)에 등장하는 킥다점 여급 ‘미사애’는 “오직 소학을 마쳤을 그뿐으로, 결코 총명하지도 어여쁘지도 않았으나, 어쩌면 예술가에게는 도리어 그러한 여자가 아내로서 가장 적당⁷⁾”하다고 여겨지는 건실하고 평이한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여급을 다루되, 카페라는 근대적인 신흥술집에 적을 두고 있는 ‘카페 여급’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의 작품과 그 밖에 카페 여급이 등장하는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30년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여급의 사회적 성격규명을 통해, 이상이 작중에 동거인으로 혹은 연애의 상대역으로 왜 여급을 선택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여급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신흥 소비공간 카페와 여급의 출현

전통적인 과거의 여성들에게 직업은 없었다. 여성의 사회생활과 참여

7) 박태원, 『윤초시의 상경』(깊은샘, 1991), p.232.

를 의미하는 직업은 곧 남자와 동등한 여성들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 직업은 용납되지 않았다. 개화기에 이르러 신사상의 유입과 함께 다양한 신학문을 배운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했으나⁸⁾ 그 이전까지 여성의 직업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굳이 예외를 들어본다면, 기생이라는 특정 직업이 있을 것이나 기실 이것은 직업이라기보다 신분이라 볼 수 있으며 굳이 직업의 분류에 넣는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기생의 특색은 근대에 이르면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와 아울러 점차 사양길에 접어든다.⁹⁾ 그리하여 전통적인 기생의 특색이 점차 퇴색되면서 직업적인 면모를 띠기 시작하며,¹⁰⁾ 나아가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시작한다. 그 예로 「봉별기」에서 이상이 처음 만난 여성 ‘금홍’은 본시 기생이었으나 후일 도시로 이입했을 때에는 「지주회시」와 「날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급이 된다. 1930년을 전후로 대도시에는 카페와 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카페 여급과 카페걸이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전의 기생과는 달리, 당시 카페 여급(카페걸)은 귀속적인 신분

8) 이배용 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각광받는 여성의 직업은?」, 『최초'를 연 여성들의 영광과 시련』,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청년사, 1999), pp.17~27과 pp.197~281. 당시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교사였으며, 그 밖에 여성 직업으로 의사와 간호사, 산파, 기자, 전화교환수, 미용사, 티켓걸, 가소린걸, 백화점걸, 버스걸 등이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여성들과 그들의 직업으로는 기자 최은희, 의사 박에스터, 서양화가 나혜석, 성악가 윤심덕, 무용가 최승희, 철학박사 김활란 등이 있다.

9) 白花郎, 「잃어진 民俗-妓生의 特色」(『조광』, 1936. 10).

10)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 들수록 私娼이 만연해 지면서 기생, 창녀, 갈보의 구별없이 매우 행위가 난무했다. 「朝鮮内の 기생과 창기가 참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齊藤 實의 涸渴之魚 정책(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오랜 가뭄에 물이 말라 찾아져 들어가는 웅맹이의 고기매처럼 경제적으로 말라죽게 하는 정책) 효과가 무르익어 가는 1925년 이후의 일이었으며, 이때는 조선천지에 기생·창녀·갈보 등의 구별이 없이公私의 賣淫女가 충만하였-」다고 한다. 문정창, 『軍國日本朝鮮強占三十六年史』 上(栢文堂, 1965), pp.106~107; 손정목, 『日帝強占期 都市社會相研究』(일지사, 1996), p.465에서 재인용.

의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반영된 직업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카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말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문과 같은 대중지를 통해 그 실상이 지면에 널리 보도되기는 1931년 가을이다.¹¹⁾ 당시 신흥 술집으로 등장한 카페는 근대문명의 산물이며, 카페 여급 역시 문명이 낳은 새로운 직업으로서 여성만의 전문직 종이었다. 이러한 카페라는 신흥 소비공간에 대한 묘사는 이상의 장편 『12월 12일』에 잘 나타나 있다. 작중 X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서 식당의 쿡(Cook)이 되는데 그 식당, 카페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목줄을 매이고 있는 식당은 이름이야 먹을 식자 식당일세마는 그것을 먹기 위한 식당이 아니라 놀기를 위한 식당일세. 이 안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고 라디오가 있고 축음기가 몇 개씩이나 있네. 뿐만 아니라 어여쁜 여자(女給)가 이십여 명이나 있으니 이곳 청등(靑燈) 그늘을 찾아드는 버러지의 무리들은 「만하탄」과 「화이트 호스」에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난조(亂調)의 재즈에 취하며 육향분복(肉香芬馥)한 소녀들의 붉은 입술을 보려고 모여드는 것일세. 공장의 기적이 저녁을 고할 때면 이곳 식당은 그 광란(狂亂)의 똑계를 열기 시작하는 것일세. 음란을 극한 노래와 광대에 가까운 춤으로 어우러지고 무르녹아서 그날 밤 그날 밤이 새어가는 것일세. 이 버러지들은 사회 전반의 계급을 망라하였으니 직업이 없는 부랑아(浮浪兒)·「샐러리맨」·학생·노동자·신문기자·배우·치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계급의 그들이나 그러나 촉감(觸感)의 향락을 구하며 염가(廉價)의 헛된 사랑을 구하러 오는 데에는 다 한결 같이 일치하여 버리고 마는 것일세.¹²⁾

11) 손경목, 『賣春業』, 『日帝強占期 都市社會相研究』(일지사, 1996), p.469 참고. 「카페단속 京畿道警에서」(『동아일보』, 1931. 9. 24), 「外國人 女給 돈 兩 카페에 罰金」(『동아일보』, 1931. 10. 7).

12) 이상, 「12월 12일」, 『이상문학전집』 2(문학사상사, 1994), p.37.

X가 말하는 식당은 단순히 밥집이 아니라, 술과 애교를 파는 여급이 있는 카페나 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적빈에 허덕이던 X가 다양한 근대적 풍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탓에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용어로 카페의 요모조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카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금과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와 라디오, 축음기 등 서양식 음향기기 시설을 갖추고 서양 음악을 보급하고 있다. 둘째, 서양에서 유입된 술을 판매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문명을 체현해내면서 술과 애교를 파는 카페 여급이 있다. 넷째, 카페의 출입에는 신분의 제한이 없으며, 노동자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카페라는 신흥 술집의 특징은 전통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먼 서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개화기 이래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경성을 비롯한 대도시가 소비의 장이 되고 그 신흥 소비공간이 카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기생집, 요리집, 유곽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와 향락의 기회도 있지만, 카페라는 새로운 유흥의 장은 계층여하를 막론하고 대다수 도시인들에게 ‘문명화된’ 소비와 향락의 무대로서 각광받는다. 즉 돈만 있으면 누구나 ‘메리’ 혹은 ‘아끼꼬’라 불리우는 모던 카페걸의 접대를 받으며 서양음악과 서양술과 같은 문명의 외피에 둘러싸여 문명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의 대중화가 촉발된 공간이 바로 카페였다.¹³⁾ 심지어 1934년 경성의 풍경을 알리는 잡지에서는 수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인 측의 동맥선인 본정통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에로』 방열진’,¹⁴⁾ 카페를 소개하고 있다.

13) 1934년 당시 카페 전문 잡지 『女聲』과 안내서 『大京城』에 의하면, 서울의 유명 카페는 명동과 회현동의 일인(日人) 거리를 중심으로 菊水, 丸ビル, 明治軒, 라디오, 바론, 엔젤, 王冠, 白馬가 있으며, 종로를 중심으로 종로회관(鐘路會館)과 낙원회관(樂園會館) 정도가 있다고 소개한다. 여기에 근무하는 당시 여급들의 정확한 수효는 잘 알 수 없으나, 1937년 신문기사에 의하면(『동아일보』, 1937. 11. 5), 1936년 말 카페와 빠의 여급은 4060명으로 전년(1935년)에 비해 726명이 증가되었다고 집계하고 있다. 손정목, 앞의 책, p.479에서 재인용.

이러한 카페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여급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에게 서구 문명의 ‘메신저(messenger)’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 도시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모던걸’이라는 일군의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도시에 출현한 새로운 직업 여성과 신식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중 특히 카페나 뼈에 근무하는 여급들이 일명 모던걸이라는 대명사로 총칭되었는데, 그만큼 그들은 복장과 사고에 있어서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김유정의 단편 「따라지」에는 이러한 카페 여급의 외양 묘사와 함께 당시 세인들의 시선이 잘 나타나 있다. 작중 여급들은 흔히 담배를 피우고 무엇보다 화장이며 몸치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집에서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까닭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카페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들인지 모른다. 영애하고 아끼꼬는 아무리 잘 봐도 씨알이 사람될 것 같지 않다. 아래 옷턱도 몰라보는 애들이 난봉질에 향수만 찾고 그래도 영애란 계집애는 비록 심술은 내고 내털망정 뭘 물으면 대답이나 한다. 요 아끼꼬는 방세를 내래도 입을 꼭 다물고는 안차게도 대꾸 한마디 없다.¹⁵⁾

이처럼 여급들은 자신의 몸치장에만 주력하며 그 행실이 단정치 못했으므로, 세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日本 内務省이나 内閣統計局에서는 그 職業分類中에 明瞭하게 女給을 女子職業中에 헤이고 잇스며 그 外에 京城職業紹介所에서도 女給의 項目”¹⁶⁾을 명시할 정도로 당시 여급이라는 직종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새롭게 유입된 근대 문물 즉 ‘백화점’에 근무하는 ‘백화점걸’, ‘버스’에서 근

14) 「京城의 工口街風景」(『朝鮮及滿洲』, 1934. 4), 손정목, 앞의 책, p.469에서 재인용.

15) 김유정, 「따라지」, 『김유정전집』(한림대출판부, 1987), p.285.

16) 강정희, 「女性戰線—女給도 職業인가」(『신여성』, 1929), p.21.

무하는 ‘버스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술집인 ‘카페’에서 근무하는 ‘카페걸’ 역시 신종 직업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다양한 ‘걸’들과 구별되는 여급만의 변별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여급이 되기 이전 기생이었거나 배우인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여학교 출신의 학력을 가진 이도 많았다. 그러니 만큼 카페에서 술과 애교를 파는 카페 여급에 대한 부정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당시 카페 여급들은 그곳을 출입하는 지식인들과 한담(閑談)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지적 여성들로서, 지식인들의 호감을 얻었다.

그 예로 1920년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일본에서 자주 만나는 여급 역시 여학생 출신으로 돈이 없어 여급이 된 인물이다.¹⁷⁾ 이상의 「환시기」에 등장하는 여급은 손수 고리끼전집을 구해서 읽을 정도의 지적 여성이며, 「실화」에 등장하는 일본의 카페 여급은 미술을 전공하는 여학생이다. 그 밖에 「동해」 등 단편의 실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의 부인, 이화여전 출신 변동립 역시 이상이 일본을 떠난 이후 생활난 해결을 위해 카페에서 일한 바 있다.¹⁸⁾ 이처럼 당시 카페에서 일하는 여급은 여학교를 중도하차 하거나 여학교를 졸업한 어느 정도의 지적 여성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여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이 카페 여급으로 전향한 것인가. 그 원인은 김유정과 박태원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소설에서 1930년대 지적 여성들이 여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계기는 가난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모를 비롯한 타인에 의해 팔림을 당한다거나, 여학생 혹은 가정이 있는 부인이 생활을 위해 스스로 여급이 되는 수동과 피동의 차이뿐이다. 김유정의 「따라지」에서 ‘아끼꼬’

17) ‘이인화’는 아내를 장사지내고 생긴 돈으로 그녀의 등록금을 부치면서 여급생활을 청산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18) 김향안, 「이상이 남긴 유산들」, 『문학사상』(문학사상사, 1987. 1), p.117 참고. 김향안은 변동립의 개명이다.

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여급이 되었고 ‘영애’는 아버지가 딸을 판 경우이고, 『야앵』에서 ‘정숙’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둔 기혼녀이지만 호구지책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여급이 된 경우이다.¹⁹⁾ 이와 유사하게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노라’는 가정을 벗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전전하다가 카페 여급이 된다. 또 박태원의 『성탄제』에서 ‘영희’는 스스로 여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여급이 된 경우이고, 이효석의 『계절』에서 ‘보배’는 여학교를 마치고 연애에 실패한 후 방황하다가 여급이 된다. 이처럼 다수의 여성들이 가난을 해소하고자 선택한 직업이니 만큼, 여급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그에 응당하는 특수한 돈벌이가 있었다.

3. 카페 여급의 직업적 특수성

여급이외에 당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1930년대 당시 발간된 여성잡지에 소개된 여성들의 전문 직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무시간 및 보수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표 1>과 같다.²⁰⁾

이러한 전문 직종은 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희박할 뿐 아니라, 보수가 많은 우수 직종은 일본인들의 차지였으므로 대다수의 여성들은 단순 노동 위주의 제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 위주의 제조업은 그 일이 고될 뿐 아니라, 보수가 상당히 취약했다. 당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59전으로 1

19) “방세는 내라구 조르고 먹을건 없고 언네는 보채고 허니 (...중략...) 그래서 하루는 잔뜩 취해들어온 걸 붙들여 앉아서 이래선 당신허구 못살겠우, 난 내대루 벌어먹을 터이니 당신은 당신대루 어떻게셈대구 벌은 민적을 갈라”고 하고 여급으로 나선 것이다. 김유정, 『야앵』, 앞의 책, p.211.

20) 이성환, 『婦人과 職業戰線』(『신여성』, 1932. 3), pp.12~19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업종	근무시간	보수
제사직공(製絲職工)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일급 20전~30전, 숙련공 일 경우 1원
연초(煙草)공장 여직공	12월-3월→ 오전 8시~오후 6시, 4월-11월→ 오전 7시~오후 5시	월급 9원~17원
서울대륙고무공장 직공	오전 6시~오후 6시	일급 15전~50전
백화점 여점원	오전 9시~오후 10시 30분	일급 15원~30원
전화 교환수	하루 평균 8시간~12시간	월급 25원~26원
간호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월급 25원~62원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었다.²¹⁾ 게다가 미혼 여성의 임금은 성별, 연령별 차별을 이용한 저임금 수준에서 1개월 식비와 매월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강제 저축 및 공장내의 규율 강화와 노동 강도의 증가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채택한 별점에 의한 벌금제의 벌금까

21) 구체적으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당시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일본 노동자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9년 민족별·연령별 임금수준 (단위 : 원)

민족별	연령별	평균임금	최고임금(업종)	최저임금(업종)
일본인	성년공	1.01	1.60(고무공업)	0.70(성냥제조업)
	유년공	0.61		
조선인	성년공	0.59	0.98(양말제조업)	0.35(鬃 제조업)
	유년공	0.32	0.54(고무공업)	0.19(의복공업)

비고 ① 조사공장 : 50명 이상의 직공 상용공장

② 조사업종 : 37개업 업종

③ 조사기간 : 1929년 1월~12월

④ 성년공은 16세 이상의 노동자, 유년공은 16세 미만의 노동자임

이여성·김세용, 『수자조선연구』 제2집(세광사, 1931), pp.80~82; 문소정, 「일제시대공장 노동자 계급의 가족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14 (한국정신문화원, 1990), p.98에서 여성의 임금만을 재인용함.

지 삭제하면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극히 적었다. 예컨대 1932년 조선제사 공장의 경우 1일 13시간 노동하여 벌금, 기숙사비를 제하고 난 뒤 그들에게 한 달에 겨우 1~2원만이 남았다.²²⁾

그러므로 다수의 여성들은 지독한 생활난을 타계할 양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급이라는 신흥 서비스업에 가담하기 쉽상이었다. 물론 기생들이 권번에 빛과 몸값으로 지당잡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급 역시 카페 주인에게 얼마간의 빛이 있었다.²³⁾ 그런 즉 그들의 하루 벌이 다수는 카페 주인에게 반환되기 일쑤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집이나 여관에서 실질적인 영업 행위에 더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여급의 보수에 관한 자료는 잘 찾아 볼 수 없으나 이상 작품을 근거로 살펴보면 1936년 6월에 발표된 「지주회시」에서 돈 잘버는 여급 ‘마유미’는 하룻밤 ‘3~4원’의 돈을 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에 발표된 「날개」에서 ‘나’는 아내에게 각각 ‘5원’, ‘2원’을 건네주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룻밤 평균 2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다른 직종의 일당에 비해 그 수익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동거인이나 가족들은 이들의 호객행위를 짐짓 모른 채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방을 비워주는 것이 통례이다. 김유정의 「따라지」에서 ‘영애’는 밤손님이 잤은 ‘아끼고’를 위해 자주 여관 신세를 진다.

영애나 아끼꼬나 둘중의 누가 밤의 손님이 있으면 하나는 나가 잘 수밖에 없다. 둘이 자도 어깨가 맞부딪는데 그런데 셋이 눕기에는 너무 창피하였다.

22) 『동아일보』(1931. 9. 1), 문소정, 위의 책, p.107에서 재인용.

23) 시골이나 벽지에서 무지한 여성을 도시로 데려와 카페 여급을 시킬 경우, 그 부모에게는 얼마간의 돈을 주어 딸을 데려오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은 자신이 후일 갚아야 하는 빛이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는 교통비 일체, 옷값 일체, 화장품값 일체가 빛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박태원의 「길은 어둡고」(『개벽』, 1935. 3)에 등장하는 카페 여급 ‘향이(하나꼬)’는 주인에게 275원의 빛이 있다.

나가서 자면 숙박료는 오십전씩 받기로 하였으니까 못갈것도 아니다 마는 그 달날 밝은 낮에 여기까지 허덕허덕 찾아오는 것은 어찌 좀 어색한 일이었다.²⁴⁾

박태원의 「성탄제」에서 가족들은 딸이 데리고 온 밤손님에게 무관심하며, 오히려 다음날 딸이 “사내를 줄라 식구 수효대로 짜장면”²⁵⁾을 시켜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맛있게 짜장면을 먹어 치운다. 가족들이 옆방에 누워 있는 집에서까지 호객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동기는 실상 월급만으로 충당되지 않는 가족의 가계비용 마련이 대부분이다. 박태원의 「골목안」에서 큰딸 ‘정희’는 여급생활을 통해 무기력한 아버지와 나이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비,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의 학비를 혼자 마련하고 있다. 그녀 역시 월급만으로는 그 많은 돈을 당해 낼 수 없으므로 한 달에 서너 번은 외박을 하면서 동생의 월사금 및 생활비를 벌어들이지만, 정작 ‘정희’ 자신은 집에 돌아와서도 술에 의지해서 자신의 울분을 삭인다. 「성탄제」에서 큰 딸 ‘영이’는 이러한 자신의 속내도 모르면서 자신을 모멸하는 동생 ‘순이’의 독설에 분통이 터져서 억눌러 왔던 내면을 토로한다.

요년아. 니가 그으예, 고걸 또 말을 하구야 말었구나? 왜 부랑잔 집안으루 끌어들이는 거냐구? 누가 언제 그런 짓까지 해서 돈을 벌어 달랬느냐구? …… 오오냐. 내 다아 일러 주마. 이년아. 니가 그랬다. 바루 니가 그랬다. 날더러 그렇게래두 해서 월사금을 맨들어 달라구 바루 네년이 그랬다. 가후에 여급질을 해 가지구 무슨 수루 네 식구 밥을 끓여 먹구. 옷을 해 입구, 그리고 네년의 학비까지 댄단 말이나? 그래 몸이라두 팔밖에 무슨 수루 다달이 네년의 월사금을 맨들어 준단 말이나? 요년아, 바루 네년이 날 보구 그 짓을 하랬다 …… 뭐요? 그만 해 두라구요? 동네가 부끄럽다구요? 이렇게 딸년을 망쳐논 게 누구데 그러우? 어머니유, 어머니야! 바루 어머니야. 툇하면 애, 퀴이 집세 재촉 또 하더라. 쌀이 떨어졌다. 나물 또 덜러 와야 한다. 김장두 당겨야 한다.

24) 김유정, 「따라지」, 앞의 책, p.286.

25) 박태원, 「성탄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깊은샘, 1995), p.87.

…… 나는 무슨 화수분인 줄 알았습니까?²⁶⁾

이처럼 자신의 한몫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 여급들은 폐점 이후 호객을 맞고 순이익을 벌어들인다. 그러므로, 근대적인 신흥 술집 카페에서 일하는 카페 여급은 출·퇴근의 근무개념이 있는 동시에, 퇴근 후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 몫 톡톡히 챙길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근대가 낳은 신흥 직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급은 개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많은 상황의 변수를 몰고 올 수 있었는데, 폐점 이후 호객행위가 지닌 이러한 직업적 특수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4. 육체와 정신이 이분화된 생활인

이상의 「지주회시」에 등장하는 카페 여급은 룬펜 인텔리 남자 주인공과 동거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남자를 대신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남자에게 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상의 작품뿐 아니라 동시대 작가들의 여급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김유정의 「따라지」에서 여자고보를 중퇴하고 여급이 된 ‘아끼꼬’는 소설을 쓴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룬펜 인텔리 ‘톨스토이’를 보면서 “학교 때 수신 선생이 이야기하든 착하고 바보 같다는 그 톨스토이가 과연 저런 건지 하고 객쩍은 조바심²⁷⁾을 느끼면서 좋아한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아끼꼬’는 밤손님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룬펜 인텔리 ‘톨스토이’에게만 향해 있다.²⁸⁾

26) 위의 책, p.83.

27) 김유정, 앞의 책, p.295.

28) 그녀는 적극적으로 ‘톨스토이’에게 접근하고 그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까지 한다. 주인의 방세 독촉에 시달려서 당장

이처럼 카페 여급들은 비록 경제력이 없는 무직자이거나 혹은 유부남 일 망정 먹물의 흔적이 있는 지식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시작한다. 박태원의 단편에는 이러한 여급과 지식인 남자의 동거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길은 어둡고」(『개벽』 2권 2호, 1935. 3)에서 주인공 여급은 남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몸과 마음을 허락하였으나, 이미 그 남자에게는 처자가 있다. 아내의 자리도 첩의 자리도 약속되지 않는 동거 생활에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 하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남자의 사랑은 점차 식어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량」 「悲涼」(『중앙』 1권 2호, 1936. 3)에서 주인공 지식인 남자는 좋은 혼처와 가족을 등지고 카페 여급과 동거생활에 접어든다. 그러나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술을 따라, 아양을 떨어, 벌어진 몇 푼의 돈이 아니고는”, “담배 한 대, 변변히 태우지 못하고”, “한 끼, 설령탕 한 그릇이나마”²⁹⁾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면서 헤어질 방안에 골몰한다. 추운 겨울밤 여자가 단칸방에 내객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남자는 다시 눈내리는 겨울거리로 쫓기듯 나가면서 모욕을 느낀다. 이상의 「날개」에서 내가 아내의 내객에 대해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 작품의 룬펜 인텔리 ‘나’는 여자가 손님을 동반하고 돌아온 밤이면 스스로 방을 비워줘야만 하는 비굴한 내적 갈등과 모멸감을 사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을 얻고자 하지만, 당시 불황으로 말미암아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어 쉽사리 여급의 주위를 떠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그의 비애는 증폭된다. 반면 그 밖에 박태원의 단편에서는 동거하는 여급과 룬펜 인텔리의 견고한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그러나 「보고」(『여성』, 1936. 9)에서 마음씨 고운 여급이 룬펜 인텔리와 함께 따뜻한 부부애를 나누고 있지만 「윤초시의 상경」(『家庭の友』, 1939. 4~5)에서 드러나듯 중국에는 ‘윤초시’라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남자는 다시

쫓겨나갈 수세에 몰린 ‘톨스토이’를 지켜보던 ‘아끼꼬’는 주인과 몸다툼을 하면 서까지 ‘톨스토이’를 변호한다.

29) 박태원, 「비량」,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깊은샘, 1995), p.207.

가정으로 복귀하고 여자만 외로이 슬픔을 달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 여급과 지식인의 동거는 그들의 자율적인 만남보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자칭한 동거는 곧 생활에 있어 절름발이, 불균형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카페 여급들은 무엇 때문에 무능력한 남자와 비극적인 결말이 뻔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그 자신은 어렵게 돈을 벌어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페 여급들은 정신의 빈곤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꼬나풀’(남자)을 만든다. 「지주회시」에서 돈 잘버는 똥똥보 ‘마유미’는 그녀의 남자 ‘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이가 거짓말쟁이줄 제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그래서) 미술가라지요. 생판전을 해놓겠지요. 좀 타일러 주세요-어렵없이 그리지 말라구요-이 마유미는 속는 게 아니라구요-제가 이려는 게 그야 좀 반허긴 반했지만-선생님은 아시지요(알고 말고) 으쌰든 그따위 꼬나풀이 한 마리 있어야 삽니다. (뭐? 뭐?) 생각해 보세요-그래 하룻밤에三四원씩 벌어야 똥에다 쓰느냐말이에요-화장품을 사나요? 옷감을 끊나요 허긴 한두 번 아니 여남은 번꺼지는 아주 비싼 놈으로 골라서 그것도 허지요. 허지만 허구 헌날 화장품을 사나요 옷감을 끊나요? (...중략...) 그래두 저런 꼬나풀을 한 마리 가지는 게 화장품이나 옷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좀처럼 싫증나는 법이 없으니까요. (...중략...) 하여간 싸움을 해 가면서 벌어들이다 그날 저녁으로 저 꼬나풀한테 빼앗기고 나면-아니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구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빨아먹는 거미를 제손으로 기르는 세음이지요. 그렇지만 또 이 허전한 것을 저 꼬나풀이 다 수긋이 채워 주거니 하면 아까운 생각은커녕 즈이가 되려 거민가 싶습니다.³⁰⁾

작중의 여급은 남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각쟁이 같은 그 남자가 다른 사치품에 비해 ‘싫증’이 나지 않고 ‘또

30) 이상, 「지주회시」, 『이상소설전집』 2(문학사상사, 1994), pp.307~308. 이하 이상의 작품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수만 본문의 인용문 끝에 명시하도록 함.

허전한 것을 '수곳이 채워 주'기 때문에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급들에게 허전한 것은 무엇이며 톰펜 인텔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고 있는가. 이효석의 단편, 「계절」(『중앙』 16호, 1935. 7)에는 카페 여급과 지식인 남자가 공생관계를 가지기까지의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어 주목할만하다. 작중 카페 여급 '보배'와 '건'은 정신의 공동(空洞)기를 틈타 서로의 삶을 비비며 공동(共同)생활에 접어든다. '건'은 잡지가 잘 안 되어 자본을 완전히 소탕하고 가난과 불안의 구렁 속에 헤매일 때 '보배'를 만났고, '보배'는 실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정신과 생활이 쇠약해 졌을 때 '건'을 만났다. 그리하여 '보배'는 떠나버린 남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건'과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이 작품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보배'와 '건' 사이에 새로 생겨난 5개월 된 아이를 강에 버리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처럼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거침없이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반드시 연애가 아닌 것도 아니었으나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생활"³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을 말하자면 그가 다음 일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유숙하고 있으면 족한 정류장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애정의 산물이 생겼을 때에도 그것을 길러갈 욕망도 능력도 없는 두 사람은 합의의 결과 그 수단을 써서 그 노릇을 한 것이었다.³²⁾

즉 두 사람의 공동생활은 '다음 일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의 유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건'의 입장에서는 목전의 가난을 타계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했다면, '보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깊은 실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여급들은 정신적인 가난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

31) 이효석, 「계절」, 『이효석전집』 1(창지사, 1990), p.319.

32) 위의 책, p.320.

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남자와 사랑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에게 육체와 정신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다. 육체가 호구지책을 위한 삶의 외피이라면 메말라 버린 정신은 깨끗하고 고귀한 그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삶의 내면이자 성역(聖域)이다. 일상에서 육체를 혹사당한 그녀들은 황폐해진 자신의 성역을 위무해 줄 수 있는 성자의 필요에서 말미암아, 비록 무직이고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처자가 있을지언정 정신이 풍요로운 지식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카페라는 직업공간이 외면적인 육체와 감각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삶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기다리는 남자와 그들만의 보급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의 안식처이자 피로한 삶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여급은 육체와 정신을 이분화시켜 사고하고 생활하는 근대적인 인물이다. 육체가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신은 그들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理想)이다. 이처럼 여급은 그들의 실생활을 통해 육체와 정신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이상(李箱)은 이러한 카페 여급의 근대적인 면모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둘러싼 이 세계의 근대 풍경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5. 여성의 직업 필요성과 한계

이상의 여성관이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날개」와 「봉별기」가 있다. 「봉별기」가 이상이 처음 마음을 준 여자인 기생, '금홍'과의 만남과 이별의 여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날개」는 서울에 올라온 '금홍'이가 기생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몸을 팔면서 이상과 동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그런 즉, 이상의 여성관은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던 기생 출신의 '금홍'이를 통해 습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여성에 대한 단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女王蜂과 未亡人—世上的 하고많은 女人이 本質的으로 이미 未亡人 아닌 이가 있으리까? 아니! 女人의 全部가 그 日常에 있어서 개개 「未亡人」이라는 내 論理가 뜻밖에도 女性에 對한 冒瀆이 되오? (『날개』, p.319)

② 天下의 女性은 多少間 賣春婦의 要素를 품었느니라 나 혼자는 굳이 信念한다. 그대신 내가 賣春婦에게 銀貨를 支拂하면서는 한 번도 그녀들을 賣春婦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錦紅이와의 生活에서 얻은 體驗만으로는 成立되지 않는 理論같이 생각되나 其實 내 眞談이다. (『봉별기』, p.353)

이상은 여성을 정의 내림에 있어, ‘여왕봉’, ‘미망인’, ‘매춘부’의 속성을 빌려온다. ‘여왕봉’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벌떼에서 산란능력이 있는 암벌’을 지칭하며, ‘미망인’은 ‘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인³³⁾’을, ‘매춘부’는 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성(性)을 수단으로 해서 재화를 생산해 내는 여자를 의미한다. 사회생활과 산란 능력, 남편 부재, 재화생산의 수단으로써 성(性)이라는 각각의 의미는 이상 작품에 등장하는 직업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제요소들이다. 작중의 여급들은 비록 주인공과 동거 혹은 부부 형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들의 생식기능은 출산을 통한 종족보전 능력이 배재된 채 오직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회적 기능만을 보여주고 있다. 전래의 여성들이 직업 없이 오로지 가부장적 역량을 가진 남편의 힘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에 비해, 그들은 스스로 사회 생활(여급)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경제력을 통해 무력한 룸펜 인텔리 남성을 부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그녀들은 실세 있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모두 ‘미망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상의 여성관을 요약하자면 ‘사회생활 능력’과 ‘매춘부적 요소’를 구비한 인간이라 규정할 수 있다. 먼저 ‘사회생활 능력’과 관련하여 이상의 작품을 관찰해보면, 실제 작중에 등장하는 여급의 생식능력은 사회생활을 통한 재화생산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개』에서 내객은 아내에게 돈을 주고,

33) 이희승, 『국어사전』(민중서관, 1989), p.821와 p.1519 참고.

아내는 그 돈을 ‘나’에게 준다. 「지주회사」에서 여급인 아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투철한 ‘사회생활 능력’, 바꾸어 말하자면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상의 여성관 중 ‘매춘부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은 여성을 일컬어 ‘노라의 따님’, ‘코론타이의 누이동생³⁴⁾’이라 명명한 이상의 다른 논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로라는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간 인물이며, 콘론타이는 대등한 남녀관계를 부르짖던 사회 운동가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여성에 관한 기존의 진보적인 논의들을 이미 섭렵한 바 있는 이상은 그의 여성관에 있어서도 역시 진보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데, 즉 그는 과거 특정 직업 없이 그저 남편에게 밤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의식주를 기생적으로 해결해 나간 전통적인 여성의 삶과 대조적으로 비록 매춘부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지언정 사회생활 능력을 구비한 직업 여성을 더 옹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당시의 논설이 있다.

그러나 요새 우리나라 여자 더욱이 소위 공부한다는 여자들이 흔히 바라는 것과 가튼 생활—곳 부자집에 시집가서 안밖그로 하인두고 유모두고 식모두고 침모두고서 나는 손짜락 하나 꿈작 아니하고 남편이 버러오는 돈으로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저주(呪呪)받을 낫쁜 일외다. 그러한 여자들이 바라는 바와 가티 사회덕 직업도 아니가지고 집안일도 친히 아니하고 곳 놀고 먹는 안해는 곳두말할 것도 업시 그 남편에게 다만 생기기(生殖器)를 팔고 어 더먹는 것에 지나지 안을 것입니다. 하로밤에도 여러 남자에게 생식기를 일원 혹은 오원씩 맞고 파라서 생애하는 창기(娼妓)나 매음녀와 이러케 한 집에 드러 안져서 다만 한 남편에게 한 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파라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얻는 이런 종류엿 안해와는 결코 다른 덤이 하나도 업슬 것입니다. 다갓치 정조를 파라서 생애하기야 맛찬가지 아님닛가 다만 서로 다른 덤이 잇다구 하면 그것은 하나는 공개덕(公開的)이오 하나는 다

34) 이상, 「失花」, 앞의 책, p.369.

만 한 남자의 전용물(專用物)임외에는 업슬것입니다.³⁶⁾

이 글은 1920년대 중반이라는 발표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 직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이르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널리 확산된다.³⁶⁾ 즉, 주요점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일한 노동, 즉 직업을 통해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일기 시작한 여성의 직업 필요성은 단순히 그들의 사회진출과 재확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의 삶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여성관이 내재해 있다.³⁷⁾ 남녀의 평등이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인격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성들은 그들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교육을 통한 문명화 및 문화 향유³⁸⁾가 그 하나요 경제적인 독립이 나머지 하나이다.

35) 주요섭, 「結婚生活은 이러케 할 것-職業과 家庭經濟」(『신여성』, 1924. 5), pp.24~25.

36) 당시 여성 잡지에 실린 글 가운데 여성 직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호, 「朝鮮女性과 職業-나는 農夫가 되라고 勸합니다」; 박달성, 「웨-제힘으로 살지 못하느냐?-남편을 바라보는 모든 녀성들에게」(『신여성』, 1926. 2); 김명호, 「女子로서 먼저 할 自己革命-네전에 물으든 自己와 初對面하라」(『신여성』, 1926. 9) 참고. “말하면 過去의 女子의 職業이란 것은 男便의 職業에 그림자(影子)라고 받게 더 말할 수 업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過去의 生活을 肯定할 수 업습니다. 아모 姓名업시 男子에게 附屬되어 잇섯지만 女子도 一個 人格者임을 認定하는 以上에는 職業도 따라서 自己의 것이라 할만한 것이 잇서야 합니다.” (박달성, 위의 책, p.9)

37) 김윤경, 「婦人運動과 人格問題」(『신여성』, 1924. 12), p.6.

38) 인격과 더불어 논의되던 당시 문화라는 상위개념은 인격과 더불어 이미 여성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일반화 되었다. 1920년대 초입부에 문화라는 신개념이 확산되면서, 문화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운동’과 ‘문화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자세한 것은 「文化運動의 昔今」(『개벽』, 1922. 3)와 「文化主義와 人格上平等」(『개벽』, 같은 해)를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전제로 할 때 이상이 파악하고 있는 여성의 두 가지 속성, '사회생활 능력'과 '매춘부적 요소'는 당시 여성의 직위 변화와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 즉 남성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하는 직업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일부에 그칠 뿐이요,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편을 상대로 혹은 호객을 상대로 자신의 생식기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가 결국 그 시대 사회통념의 발빠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때, 이상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여급)의 삶은 시대적 산물로서 당시 과도기적인 관습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은 자신의 작품 속에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인물로써 카페 여급을 선택한 것이다.

6. 결론

여급은 1930년대 전후, 신흥 소비공간 카페와 더불어 출현한 신흥 직종이다. 이러한 여급의 출현 의의와 직업적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급이 등장하는 이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1930년대 당시의 잡지와 동시대 작가 박태원,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의 작품 중 카페 여급이 등장하는 일련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여급은 당시 유입된 근대문명의 체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카페 폐점 이후의 호객행위를 통한 순이익 창출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폐점 이후 호객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야말로 여급들에게는 동거하는 가족, 혹은 남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순수익이 되는 만큼,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이상의 단편 「지주회시」와 「날개」는 이러한 직업적 특수성을 가진 여급과 이에 기생해서 동거하는 남자라는 당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당시 여급들은 육체와 정신이 이분화된 생활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의 몸은

비록 돈을 좇아 황폐화되고 고갈되어 있을 지라도 이들의 정신은 높은 이지(理智)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은 지식인 남자를 동거생활 혹은 공동생활의 상대자로 선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로한 육체를 통해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과 동거하는 룸펜 인텔리 남자의 부양비가 된다.

이상의 단편에 등장하는 한없이 게으른 남자와 이를 먹여 살리는 여자의 생활 패턴 역시 당시 여급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의 여급들은 카페의 폐점 이후에도 순이익 창출을 위해 호객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까지 육체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나 그들의 정신만은 높은 이지(理智)를 지향하면서, 먹물이 깊이 베여있는 룸펜 인텔리 남자와 동거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수단으로서 육체와 삶의 목적으로서 정신이라는 이분화된 사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생활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급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이상의 소설(「지주회시」 「날개」)이다. 이상은 세계를 인식해 나가는 매개체로서 여급을 설정해 놓았으며, 그의 여성관 역시 이러한 여급과의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의 여성관은 ‘사회생활 능력’과 ‘매춘부적 요소’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여성의 직업 필요성과 그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로라가 등장하는 「인형의 집」과 콘론타이의 신사상을 이미 섭렵한 이상이니 만큼 이는 과거 여성에 대한 비판과 당시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Cafe-girl in the 1930's Novel

- On the Yi, Sang(李箱)'s Viewpoint of Woman -

Ahn, Mi - Yo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Yi, Sang's viewpoint of woman with cafe-girl who enters on novel. Those days, cafe-girl who appears along with cafe' appearance is the representative of modern culture. They have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y have a job that is remarkable for self-control. Second, on living with a loafer intelligentsia they divide spirit from body. They maintain their family or a loafer intelligentsia with prostitution after closing time. Although they exhaust their physic in moneymaking, spirit that is divided from body seeks for intelligence on living with a loafer intelligentsia. Cafe-girl who enters on Yi, Sang's novel also has these two characteristics, and Simultaneously they are contemporary characteristic. By analysis of Yi, Sang's novel that is entered Cafe-girl and a prostitution we can find Yi, Sang's viewpoint of woman, that they have having an ability to do social life and the factor of prostitution. These Yi, Sang's viewpoint of woman points out the need of woman' job and their difficulty at the time.

